

열두 달 식당으로 오세요!

☁️ 〈한 줄로 정리하기!〉

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아래의 칸을 채워 보세요.



유지은 글 | 홍찬주 그림 | 책딱지 펴냄

주요 사건

어떤 일이 일어났나요?

등장인물

누가 나오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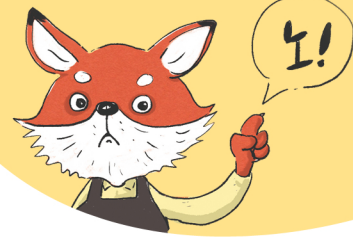
느낀 점

무엇을 느꼈나요?

열두 달 식당으로
오세요!

상상, 짐작

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?



여우가 산속에 식당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.....

.....

여우가 도시에 있는 우아한 식당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?

.....

.....

다음은 열두 달 식당을 찾은 손님들과 그 손님이 다녀간 후 여우가 붙인 안내문을 나열한 것입니다. 어떤 손님이 다녀간 후 어떤 안내문을 붙였는지 이야기의 내용을 떠올리며 알맞게 이어 보세요.

-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참새 • | • 여덟 살 아래 동물 출입 금지 |
| 늑대 • | •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동물 출입 금지 |
| 곰 • | • 설 새 없이 떠드는 동물 출입 금지 |
| 토끼 • | • 털갈이 중인 동물 출입 금지 |
| 들개 • | • 되새김질하는 동물 출입 금지 |
| 염소 • | • 여든 살 넘은 동물 출입 금지 |

이야기 속에 나오는 식당 이름에 담긴 뜻을 간략히 적어 보세요.

열두 달 식당

.....

노노노 식당

.....

나이 든 동물들은 옹골 구멍에 빠져 다친 여우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동물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타일렸습니다.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보세요. (힌트 : 69쪽)

“이웃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고 _____ 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란다.
그래야 더 _____ 으로 어울려 살 수 있어.”



여우가 생각하는 ‘완벽한 식당’은 어떤 곳이었나요?

.....

.....

여우는 멋진 식당을 만들기 위해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. 출입 금지 안내문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?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표시를 하고,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.

☐
☐

그렇게 생각한 이유



.....

.....

아빠 여우는 식당을 이어 가기로 한 여우에게 “**이 완벽한 식당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.**”는 말을 전했습니다. 아빠 여우는 왜 산속 식당을 완벽한 식당이라고 했을까요?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적어 보세요.

.....

.....

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인물의 성격을 두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.

아빠 여우의 성격

.....

여우의 성격

.....

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.

.....

.....

실력이 쑥쑥 날말 퀴즈



다음은 <열두 달 식당으로 오세요!>에 나오는 날말입니다.

다음 날말에 알맞은 뜻풀이를 선으로 이어 보세요.

내키지 11쪽 •

(기본형: 내키다)

추켜세웠지만 16쪽 •

(기본형: 추켜세우다)

은퇴 68쪽 •

먼발치 21쪽 •

항의 51쪽 •

이윅고 30쪽 •

승강이 42쪽 •

얼마 있다가. 또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.

예 [] 열한 시가 되자, 여우와 원숭이들은 식당 문을 열었어요.

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함.

예 참새들이 아무리 [] 해도 여우는 꿈쩍하지 않았어요.

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.

예 여우는 마음이 [] 않았지만,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.

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.

예 여우는 손님들과 더 [] 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.

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.

예 내 동료들은 앞에서는 나를 존경하는 요리사라고 []
뒤에서는 너무 까다롭고 뻔뻔하다고 흉보았지.

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.

예 할머니 멧돼지는 도시에서 일하던 의사였는데, 지금은 []
산속에 살았어요.

조금 멀리 떨어진 곳.

예 여우는 몰랐지만, 그때 [] 에서 산속 동물들이 여우를 지켜보
고 있었어요.

빈칸에 어울리는 날말을 [보기]에서 찾아 써넣으세요.

[보기]

저렁저렁

44쪽

터벅터벅

14쪽

도란도란

34쪽

조마조마

44쪽

듬성듬성

53쪽

부랴부랴

38쪽

[1] 서로 []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린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뛰어놀았지요.

[2] 여우는 []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어요.

[3] 여우는 [] 깨진 컵을 치우고 바닥도 닦았어요.

[4]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식당이 [] 울리는 것 같았어요.

[5] 여우는 계단이 부서지면 어찌나 [] 했어요.

[6] 온몸에 털이 [] 빠져 있어서 꼭 아픈 것처럼 보였지요.